

專門大學院의 發展과 機能

黃 宗 建

(啓明大 教育學科 教授)

I. 머리말

우리 나라의 專門大學院은 1959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의 設置를 기점으로 하여 그 후 사범대학원(1962), 교육대학원(1963), 경영대학원(1965), 신문대학원(1967), 환경대학원(1973) 등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초창기의 專門大學院은 주로 서울대학교 안의 한 機構로서 발달하였으나, 그 후 이어서 사립대학교에서도 많은 專門大學院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1983년에 이르러서는 102개 專門大學院에 60,282명의 학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專門大學院의 특수성과 地位는 一般大學院의 그늘 속에 파묻혀 그 나름으로서의 독자적인 役割과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專門大學院에 관한 조사와 연구 자료는 거의 全無할 뿐 아니라 단순히 大學院 또는 大學院教育이라는 題目이나 영역 속에서 약간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어떤 統計資料에는 대학원이라는 項目 안에서 전문대학원을 합쳐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 우리 나라 전문대학원의 성격과 役割과 機能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II. 專門大學院의 歷史와 現況

우리 나라에 제일 먼저 생긴 전문대학원은 서울대학교의 行政大學院과 保健大學院이다.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의 設立은 1959년 4월이었으나 그 設立을 위한 기초작업은 이미 1957년부터 시작되었다. 1957년 2월 美國 國際協力處(ICA)의 支援下에 서울대학교와 Minnesota 대학교간의 行政大學院 設置作業을 위한 契約이 체결되어 同年 8월에 11명, 그리고 1958년에 8명의 젊은 教授要員들이 Minnesota 대학교에 파송되어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1958년 3월에서 1962년 6월까지의 Minnesota 대학교 教授들이 顧問教授의 자격으로 來韓하였다. 이와 같은 착실한 준비과정을 밟아 서울大學院 行政大學院이 창립된 이래 독립된 시설 및 우수한 教授陣을 확보하고 많은 人材를 양성해 냈다.

그 후 行政大學院은 서울대학교 이외의 많은 대학에서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이 포함된다.

行政大學院 이외에 많이 보급된 것이 教育大學院과 經營大學院이다. 教育大學院은 1963년 서울대학교에 설치된 이래 1983년 현재에는 25개

교에 3,910명의 學生으로 늘어났는데 그 중에 國立이 10개이다. 教育대학원은 일선 教育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夜間制와 季節制 수업을 하고 있다.

經營大學院도 行政大學院이나 教育大學院과 같이 學校數와 學生數가 많은 專門大學院으로서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서울산업대학, 세종대학 등에 설치되어 많은 專門的 人力을 양성해 내고 있다. 특히 經營大學院은 大學院 入學의 자격이 없는 經營系 指導者를 양성하기 위하여 特別課程班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위에 소개한 세 가지 專門大學院 이외에도 산업대학원, 무역대학원, 식량개발대학원, 사회개발대학원 등이 있으나 그 수는 각 한두 개에 불과하다.

1983년 현재 全國 專門大學院數는 102개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인 56개 大學院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學科別로 分析해 보면 전체 203개 學科 중 절반 이상인 132개 學科가 社會科學系列(行政大學院, 經營大學院, 貿易大學院 등)에 속하며 34개 學科가 師範系(教育大學院)에 속한다. 또한 學生數를 분석해 보더라도 專門大學院 全體學生 21,633명 중에 8,800명이 社會科學系列이고 8,900명이 師範系列에 속해 있다. 그뿐 아니라 전문대학원 學生 중 약 5분의 4에 해당하는 20만 명이 夜間制課程에 등록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專門大學院은 우리 나라 産業化의 初期過程인 1960년에 그 基礎를 닦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대폭적인 팽창을 하였다. 즉 1959년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을 始點으로 개설되기 시작한 專門大學院은 1966년에는 10개, 1970년에는 27개이던 것이 1982년에는 102개로 급격한 발달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우리 나라 産業構造의 발달과 高級人力需給의 國家的 要請에 따르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 학생 모집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다. 한편 오늘날 專門大學院이 우리 나라의 산업사회와 국가적 요청에 과연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制度的인 면이나 教育

의 量的, 質的 面에서 보다 더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專門大學院의 機能

종래의 大學院은 教育法 第108條에 의거하여 “國家와 人類社會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範하고도 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 研究하며, 指導의 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특히 大學院은 최고로 높은 學問研究의 象牙塔으로서 나라의 우수한 大學教授와 學者(研究員)를 양성하는 것으로 그 機能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초창기에는 大學院의 각 學科定員이 극히 적었으며 그것도 전부 채우는 것을 꺼릴 정도로 大學院學生의 선발에 엄격하였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大學院은 學科의 助教를 양성하는 기능을 그 주된 것으로 생각했으며 또한 助教는 一定한 時期의 훈련과 경험을 거치면 오래 大學의 專任으로 발탁되는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大學院에 대한 從來의 편견과 편협된 役割期待는 1960년에 들어오면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첫째, 우리 나라 産業構造發展에 따르는 國家的 요구와 大學自體의 機能에 대한 大學人들의 새로운 생각에서 시도되었다. 英國의 大學教育改革을 위한 Robbinson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大學의 機能은 研究하고 가르치는 일 이외에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參與이다.

우리 나라의 최초의 專門大學院인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의 創設과 發展에 공헌한 李漢彬教授는 새로운 專門大學院의 新設의 의미는 現行 大學院 教育制度 속에 단지 새로운 教育單位를 追加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排他的이었던 學問界의 분위기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專門職業界(또는 官僚制)의 환경 속에 새로운 學問的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의 순수한 學者養成단이 아니라 近代社會의 高級人力養成이라는 機能을 大學이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니 되는 필연적인 과제였던 것이다.

1959년의 行政大學院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1963년의 教育大學院의 설립도 위와 같은 時代

의 要請과 새로운 哲學에 근거하는 것이다. 教育大學院은 教育法 第108條의 專門職 敎員의 養成機能을 발휘하기 위하여 設立되었다. 教育大學院의 設立 근거가 教育法 第108條와 第214條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二重의인 機能, 즉 學問研究的 機能과 專門人力 養成의 기능을 조화 있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단 教育大學院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專門大學院이 다 같이 인식하고 감당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觀點에서 專門大學院을 분석해 볼 때 대부분의 專門大學院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立場과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는 專門大學院이 制度的으로나 사회적 인식 면에 있어서 대학원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경향이 있으며, 더욱 심각한 일은 전문대학원에 관계하는 行政家나 敎授들 자신이 전문대학원을 一般大學院과 同一視하려는 경향이다.

구체적인 예로 大學院에 관한 調查資料나 研究報告는 어느 정도 있으나 專門大學院에 관한 것은 거의 없다. 文敎部나 大韓教育聯合會에서 나오는 統計年報나 年監에도 大學院은 다루어지고 있지만 專門大學院은 다루어지지 않거나 약간은 大學院이라는 범주 속에 合算이 되어 오고 있다.

한편 專門大學院 관계자들이 전문대학원을 一般大學院과 같이 學問研究機關이나 敎授養成機關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며, 반대로 專門職業訓練機關, 高級人力養成機關 또는 成人教育機關으로서의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專門大學院의 발전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전문대학원의 目的과 기능을 분명히 하는 아이덴티티의 定立과 전문대학원 自體의 독자적인 體制確立인 것이다. 一般大學院과 專門大學院은 그 目的이나 機能面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각자의 독자적인 役割을 수행해야 한다.

일반대학원은 學問研究와 敎授養成을 目的으로 學生選拔의 방법이나 교육과정과 진로지도가 구상되어야 하며, 專門大學院은 각 分野의 專門의 高級人力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學生選拔과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Ⅳ. 專門大學院教育의 質的 管理

專門大學院의 독자적인 아이덴티티와 기능의 상실에는 韓國 社會의 人文崇尚의 風潮와 전통적 大學院의 엘리트적 권위의식에 대한 향수에 기인하는 점이 다분히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制度的인 면에서 오는 전문대학원 자체의 質的 열등성에도 커다란 責任이 있다고 본다. 專門大學院教育의 質的 管理는 敎授要員 確保, 學生選拔, 敎育課程 運營이라는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과 같은 몇 개의 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전문대학원의 專任敎授陣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주로 學部에 속해 있는 교수들이 전문대학원의 교육을 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교수들의 一次的인 소속과 責任이 學部和 學部學生들의 교육에 있다고 인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大學院中心 敎育이라는 새로운 지도가 구상되게 된 것이다.

전문대학원의 열등성은 一般大學院 담당교수와 專門大學院 담당교수들간의 職位나 學位取得 背景에서도 나타나 있다. 한 調查研究에 의하면 正敎授의 職位를 가지고 있는 교수는 一般大學院 담당교수가 59.6%임에 비해 專門大學院 담당교수는 49.9%이며 그 중에도 教育大學院 담당교수는 4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교수의 자질 면의 차이는 서울과 地方 사이에 더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교육대학원 관제 교수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서울에는 91.9%임에 비해 地方에는 21.9%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專門大學院에 대한 社會的 認識이 일반대학원보다 높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전문대학원의 量的 팽창에 따른 敎育內容이나 學生들의 質的 低下이다. 전문대학원도 일종의 大學院이기 때문에 4年制大學 卒業者 중에서도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高級人力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需要와 供給의 조화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 專門大學院의 급격한 팽창은 결과적으로 大學院의 質的 低下

를 조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나라의 産業發展에 부응하기 위하여 1959년에 처음으로 생겨난 專門大學院이 그 후 10년 후인 1969년에는 23개로 증가되었다가 그 후 15년 사이에는 102개로 늘어났으며 그 중에도 56개가 서울에 모여 있는 것은 단순히 전문대학원의 발전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전문대학원의 급격한 量的인 팽창은 실제의 專門大學院教育에 대한 實需要보다 훨씬 큰 것으로 經營面에만 관심을 갖는 大學行政家간의 경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는 서로 경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成績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마구 끌어 들이는 현상을 조대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대구에는 1968년 K대학에 교육대학원이 창설되어 大邱, 慶北地方의 교육전문가 양성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K대학의 교육대학원 하나만으로도 그 지방의 수요를 겨우 충족하는 정도였으나 그 후 같은 大邱의 다른 3개 대학에서 모두 교육대학원을 신설하여 학생모집을 위한 경쟁이 더욱 가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나라 전문대학원의 質을 저하시키며 社會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심지어는 專門大學院의 이름으로 高等學校卒業 정도의 사람들을 위한 研究課程이나 特別課程 등을 하나의 學級으로까지 편성하여 운영하는 전문대학원들도 많이 있어 전문대학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高級 學館으로 보이게 되는 결과에까지 이르고 있다.

전문대학원의 正常化와 活性化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과정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문제이다. 전문대학원은 대부분 夜間大學院이며 學生들은 대부분 職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專門大學院教育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전문대학원은 주로 미국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美國에서는 全日制(full-time) 學生이나 全日制職業人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통례이다. 즉 時間制職場(part-time job)을 가진 全日制學生(full-time student)이나 그렇지 않으면 全日制職場을 가진 時間制學生이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한다. 특히 근무시간이나 業務량이

미국의 그것보다 훨씬 큰 한국에 있어서 全日制 職業에 全日制 學生을 접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일 뿐더러 전문대학원의 質과 評判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專門大學院의 커리큘럼 구성, 시간 배정, 학점 안배 또는 교육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연구와 그것을 기초로 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專門大學院教育이 그 對象이나 方法으로 보아 마땅히 成人教育的인 立場에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一般 青少年들의 正規學校나 大學의 그것과 똑같이 다루는 경향이 있다. 전문대학원의 學生은 존경받을 만한 직장과 사회적 地位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한편 體系의인 學校教育을 마치고 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사람들이다. 이러한 專門大學院 學生들의 社會的, 心理的 특성과 교육 조건을 감안하여 그들에 맞는 새로운 학습의 方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自己學習과 발표와 課題(project) 등의 方法을 통하여 그들에 맞는 길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結語 : 앞으로의 과제

첫째, 專門大學院의 目的과 機能이 再認識되어야 하며 전문대학원 관계 教授나 學生들의 아이덴티티와 方向 設定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

둘째, 專門大學院의 운영이 經營的인 側面으로만 고려되지 말고 훌륭한 高級人力養成을 위한 職業大學院으로 內實을 기해야 한다.

셋째, 전문대학원의 設置는 무계획한 亂立과 무모한 경쟁을 피해야 하며, 반드시 分野別 그리고 地域別 需要를 考慮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全日制 職場을 가지고 있는 전문대학원 學生의 조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과 教育方法의 刷新이 요청된다.

다섯째, 專門大學院의 正常化와 活性化를 위한 새로운 政策樹立과 교육과정 개혁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종합적이고도 깊이 있는 研究가 이루어져야 한다. *